

News

인수위 "불가피시 국채발행 고려...규모 가능 어려워"

연합인포맥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추경 재원 마련 과정에서 불가피한 수단으로 국채 발행 고려한다고 언급... 아직 규모 가능은 어렵지만 최후수단으로 고려한다는 입장 또한 임대차3법 관련 현 여당 더불어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 추진할 것 언급...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 포함 검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6% 돌파...연내 7% 가시화

데일리안

우리은행 '우리 아파트론' 고정형 금리 4.1~6.01%로 집계... 올해 주요 은행 중 처음으로 6%대 돌파... 연내 주담대 금리 7%대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미 연준의 강도높은 긴축 정책 시사, 이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앞으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 중

시중銀, 요구불예금도 전월 대비 8조원 이상 '감소'

더퍼블릭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 25일 기준 705조 7,374억원 집계... 전월말대비 8조 6,634억원 감소한 금액... 이 중 MMDA 포함되어 있어... 요구불예금은 은행들에게 저원가성 예금으로 마진 방어해주는 역할... 은행들은 이자 마진을 우려하는 분위기... 상대적 금리 경쟁력 있는 인터넷은행으로 고객 뺏긴 영향도 존재

"코로나에 발목"... 엇갈린 4대 은행 신남방 성적표

조선비즈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작년 신남방국가 관련 실적 분석 결과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는 순이익 증가한 반면, 인도네시아 실적 부진하며 해외사업 성적표에 영향... 특히 인도네시아 업황 우려...우리은행 제외한 나머지 은행 3곳의 현지 영업이익과 순이익 감소... 은행 간 경쟁 치열해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은 시장

실손보험 정상화 시동...비급여 관리는 여전히 숙제

e대한경제

오는 1일부터 세국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 지급... 다음달부터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강화된 심사기준 적용... 금융당국도 심사기준 강화 공감 및 인정... 다만 근본 해결을 위해 비급여관리가 필수적... 비급여 항목은 현재 병·의원마다 가격 천차만별

보험사 금리인상發 RBC 악화 비상

매일일보

주요 15개 보험사의 작년 평균 RBC는 238.9%에서 205.5%로 33.4%p 감소... 금리 상승으로 RBC 지표 하락 중... 내년 1월 도입 예정 IFRS17으로 부채 급격 증가 우려... 올해 들어서만 2조원 이상 자본 확충... 한화생명 24일 이사회를 통해 3,000~5,000억원 후순위채권 발행... NH농협생명도 최종 6,000억원 발행하기로 결정

1분기 21개 기업 IPO, 승자는 '한국투자증권'·실속은 'KB증권'

뉴스1

올 1분기 IPO 시장, 전년 못지않은 호황 기록... 총 21개 기업 신규 상장... 이 중 한국투자증권이 총 5개 기업 상장 주관하며 가장 많은 IPO 진행... 한국투자증권, 상장 주관 대가로 받은 수수료 수익 총 31억 1,187억원... 실속 행진 증권사는 KB증권...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수수료 수익만 196억원

막내린 증권사 주총...키워드는 '주주친화·경영안정'

데일리안

이번 증권사 주주총회 키워드, 경영안정과 주주친화... 주요 증권사 CEO 연임 확정하며 변화보단 경영안정 선택... 삼성증권, 주당 3,800원 결정... 메리츠증권, 보통주 기준 100원... 미래에셋증권, 300원... NH투자증권, 1,050원으로 결의... 추가하락 방어 및 주주가치 제고 차원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